

남북한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자

우리나라는 사회체제가 다른 남북으로 분단된 채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7·4남북공동선언(1971년)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6·15남북공동선언(2000년) 등을 계기로 평화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하여 체육, 경제, 관광, 군사 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문화분야는 최근야야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1990년) 후의 사례를 볼 때, 분단국가 민족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학술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정부의 사회문화교류확산정책에서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은 문화예술분야에 속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도서관도 도서 등 자료(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방식과 그 기능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발전해왔고 이러한 도서관환경 속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이질적인 도서관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또한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교류협력을 확산하여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도서관 교류협력분야에서는 몇 편의 관련 연구가 있고, 사업으로는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 현대화 사업'이나 '겨레말큰

사전 편찬 사업(교육학술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족공동체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도서관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계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 고려해 보고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유연하게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한 주민이 도서관을 통하여 모든 자료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도서관은 생산되는 도서 등의 저작물에 대해 남한은 북한의 저작물을, 북한은 남한의 저작물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집된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도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남북한의 도서관은 모든 학술자료를 비롯하여 사회체제와 이념에 관련된 자료까지도 수집하여 남북한 주민이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채널이 되어야 하고, 자료 접근의 평등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한의 도서관자료는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남북한의 도서관은 60여 년간 각급 도서관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자료 정리



김 광 진

우리협회 남북도서관협력위원회 위원장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kjkim@nanet.go.kr

와 검색 방식을 제 각기 발전시키고 도서관서비스의 형태도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 도서관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는 국제적 표준에 의하여 구축하고 이를 유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의 도서관은 한글로 표현되는 개념(주제어)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소러스의 개발 등 통일된 정보검색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저작물은 전달 매체에 관계없이 도서관에 수집하여 보존한다. 모든 지적 생산물은 보존·이용되고 후세에 전달하여야 하는 것은 옛날부터 도서관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으로 전승되어 왔다. 그러므로 사회체제를 달리할 지라도 그 사회의 저작물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전달 매체에 관계없이 모든 저작물을 수집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남북한의 도서관도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도서관 교류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한다.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있

지만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틀로서 ‘남북문화협정(가칭)’이 체결될 때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남북도서관협정을 체결하여 남북도서관협력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남북도서관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도 관련사업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분야에서 이상과 같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서관인들이 한국도서관협회와 정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발표를 통해 국가의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정책에 남북도서관 교류협력정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북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양보를 통한 남북도서관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분야에서 이와 같은 남북한의 교류협력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향후의 현상은 도서관이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확산시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㉞)